

현대차 '아이오닉 5' 티저 이미지 최초 공개

현대차 첫 클램셸 후드 슈퍼카 디자인 뺨 치네



현대차가 13일 공개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IONIQ)의 첫 번째 모델 '아이오닉 5' 외부 티저 이미지.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첫 번째 전기차다.

슈퍼카처럼...전면부 통째로 오픈 픽셀 형상화 디자인...미래지향적 E-GMP 탑재 1회 충전에 500km



●**추가 급등은 현대차 기술력의 재평가**
현대차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개발 능력과 'E-GMP'와 같은 혁신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주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에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차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실제 협력 성사 여부보다는 현대차의 미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 재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 5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라인업을 본격 확대해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모델을 선보이고 연간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8~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우할 자율주행에 대한 준비도 충실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애플과 미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신설 법인에 20억 달러(2조3900억 원)를 투자했다. 또한 레벨 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2022년 출시되는 양산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 어떤 의미와 이득이 있는지는 보다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와 애플간의 협력은 "경쟁 브랜드의 힘만 키워주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아이오닉 5에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Parametric Pixel)'이 적용되어 있다. 파라메트릭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위에 자연친화적 컬러 및 소재를 반영해 기존 전기차와 차별화했다는 것이 현대차 측 설명이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셸(Clamshell) 후드를 적용했다. 기존 슈퍼카에서나 볼 수 있던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티저 이미지만 보면 후드와 프론트 웬더 등이 나뉘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면부가 통째로 열리는 방식이다.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뉘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해 더욱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아이오닉 5에는 일반 전원(110/220V)을 차량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술이 탑재되어, 차박이나 캠핑시에도 전기 공급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전자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공식 출시 행사는 다음달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손저림에 손목터널증후군 의심? 척골신경포착증후군 가능성도!

손은 27개의 뼈와 인대, 신경, 힘줄, 근육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인 손목터널이 좁아지고, 내부 압력이 증가해 정중신경을 압박한다. 정중신경 지배영역인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일부에서 저림과 통증 증상을 유발한다.

그러나 새끼손가락 부위에서 저림과 통증이 있다면 전혀 다른 질환인 '척골신경포착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손 저림이라는 증상은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지만 통증 부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척골신경포착증후군은 팔꿈치 관절을 지나는 척골신경이 압박되어 소지(새끼손가락)와 약지 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수부 질환이다.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많거나 장시간 턱을 괴는 등 팔꿈치 관절을 구부려 척골신경에 압박을 준 경우 선천적인 팔 근육의 이상, 외상으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질 때 주로 발생한다. 손목과 팔꿈치에서의 저림과 통증은 물론 소지와 약지가 잘 퍼지지 않는 갑골 손변형이 나타나거나 엄지와 검지에서 근육이 위축되어 물건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하면 머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초기에는 손목 사용을 줄이고 팔꿈치 관절의 굴곡을 피하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야간 부목 고정 등의 비수술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됐을 때는 감압술이나 척골신경전방전위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척골신경전방전위술은 척골신경을 내측상과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동시켜주는 수술방법이다. 척골신경의 주행을 짧게 하여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압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광진구 서울프라임병원 원은영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서울대병원-서울시, '서울재난병원' 설립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서울재난병원'이 설립된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12일 서울시와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내에 개설된다. 서울시가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

하고, 서울대병원이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신설된 서울재난병원은 총 면적 1만9720㎡이며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8개 규모로 조성된다. 상황에 따라 중증환자 수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된다.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즉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원준비단장은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가 맡았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빠르게 재난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하우로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서정철 서울시장 권한대행(왼쪽)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대병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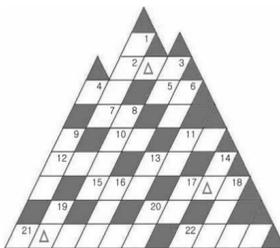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4		2		3			
7			4		8			9
		8		1		7		
	5			8			9	
2		7	1		3	8		6
	1			7			2	
		2		5		9		
9			8		1			2
	8			9			6	

■ 스도쿠정답

8	9	7	2	6	1	1	8	9
2	5	1	9	8	7	8	6	9
1	8	6	7	5	2	3	4	9
7	2	9	4	3	6	9	1	8
9	5	8	1	7	1	2	6	2
5	7	2	6	1	9	8	2	7
4	6	1	9	8	7	5	9	7
9	6	9	1	2	7	6	8	3
1	8	7	8	5	9	2	4	6
8	8	9	2	2	9	6	7	1
7	8	2	9	5	6	1	1	9
2	2	1	7	6	8	9	8	9
9	6	9	1	2	7	6	8	3
8	5	2	6	2	7	8	1	9
1	8	7	8	5	9	2	4	6
6	9	2	6	1	2	8	9	7
8	7	6	9	8	2	1	9	2
2	2	9	9	7	1	5	6	6
9	1	5	2	8	6	7	2	8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2.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해주는 곳. 04.꿈의 말린 썰개. 05.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 07.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10.같은 편이 돼 일을 함께함. 11.불길하고

무서운 꿈. 12.미사일 등을 쏘기 위해 고정하는 받침대. 13.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15.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 등에 채워 만든 가공 식품. 17.컴퓨터로 연결되는 통신 조직망. 20.아무것도 꺼거나 감지 아니한 손. 21.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뜻. "동ㅇ식ㅇ가ㅇ" 22.차바퀴의 틀레에 강판으로 만든 벨트를 걸어 놓은 장치.

■ 세로열쇠

01.아래위를 하얗게 차려놓고 얇게 화장함. 03.남의 일을 막아 해를 끼침. 06.물고기가 많이 잡힘. 08.소리를 내어 크게 웃음. 09.잘못 쓴 탄환. 11.서로 손을 내밀어 마주 잡는 일. 13.안될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

는 고집. 14.모였던 사람이 흩어짐. 16.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17.기술 따위를 전해주. 18.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 낸 틈. 19.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20.고기나 생선 따위를 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힘.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다 음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

